

사회

광주서 네번째 추석 맞는 베트남댁 프영씨

“부모 생각 간절하지만 시부모 있어 행복”

“주부들 일이 많은 추석이 두렵다고요? 저에게 가족과 사람을 나누는 한국의 명절은 새로운 희망을 기약하는 날입니다.”

광주시 동구에서 보금자리를 꾸리고 있는 레 칸 프영(Le Khanh Phuong·33)씨에게 가족들이 함께 하는 추석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 날이다. 올 명절에는 4년전 한국에서의 첫 추석 때 가족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켰노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람으로서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리겠다는 소박한 약속이었다.

초창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문을 열었던 베트남 음식점을 광주에서 손꼽히는 가게로 만들었고, 자신은 추석맞이에 두렵음을 느끼는 다문화 가정의 카운셀러로 그 어느때

학동에 베트남쌀국수·족발 판매 식당 운영
다문화가정 부부 모임서 한국예절 등 전도

보다 바쁜 대목을 보내고 있다.

그녀는 남편 김남진(44)씨와 광주 동구 학동에서 베트남 쌀국수와 족발 등을 판매하는 '92천하'(굽는 다는 의미를 숫자로 표현한 것) 식당을 운영중이다.

지난 2007년 초 김씨 여동생의 소개로 4개월 동안 한국과 베트남에서 전화로만 연락을 주고 받다가 만남 1개월 만인 같은 해 8월 '초고속 결혼식'을 치른 김씨 부부는 다른 가정의 부러움을 사는 '모범 커플'이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김씨가 아내 프영씨와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한국에 돌아온 뒤 하루종일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에 부인을 태우고 다녔을 만큼 부부 사이가 각별하기 때문이다.

김씨 부부는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어서 2년 전 식당을 열었다. 개업 당시 손님이 뜰까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빼어난 맛과 저렴한 가격으로 이젠 골수 단골이 많은 가게가 됐다.

광주시 동구 주최로 지난 5월 부모님과 지인 등을 초대해 '다문화가정 합동 결혼식'도 치른 김씨 부부는 다른 가정과 행복한 결혼 생활 비법을 서로 주고받기 위해 당시 함께 결혼식을 올린 9쌍의 다문화가정 부부와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중국 등에서 온 부인들과 한국인 남편으로 꾸려진 김씨 부부 등 총 10루종일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에 부인을 태우고 다녔을 만큼 부부 사이가 각별하기 때문이다.

중견주부의 프영씨는 이들에게 한국예절과 상차림을 전수하는 역할을 도맡고 있다. 특히 가족과 친척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추석이 가까



광주시 동구 학동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김남진(44)·레 칸 프영(33)씨 부부가 서로 바라보며 활짝 웃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워지면서 김씨 부부의 얼굴에는 더욱 큰 웃음꽃이 피고 있다.

올해로 한국에서 네 번째 추석을 보내게 되는 프영씨는 “베트남에도 한국의 추석과 같은 명절인 '중투'가 있어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에 간절해 지지만, 시부모님이 계셔서 행복하다”며 “이번 추석에도 시부모님과 함께 송편을 빚으며 즐거운 추석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이

반만 먹고 헤어지거나 주부들만 음식을 만들고,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는 것은 문제라고 프영씨는 설명했다.

그녀는 “나처럼 베트남에서 시집 온 몇몇 친구들은 혼자서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하는 추석과 같은 한국의 명절이 다가오면 겁을 먹기도 한다”며 “다문화가정의 남편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더욱 행복한 추석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나원침 (8393) 김중두



초등생 성추행

학습지 사원 검거

초등학교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남부경찰은 8일 혼자 집에 있던 여자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임모(31·광주시 서구 화동동)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40분께 광주시 남구 모 아파트 계단에서 초등학교 6년 A(12)양의 몸을 강제로 만지는 등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학습지회사 사원인 임씨는 이날 오후 4시께 영업을 하러 갔다가 아파트 앞에서 A양에게 접근해 홀로 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초인종을 눌러 '조사할 것이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속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택시 기사가 3억 귀금속 가방 찾아줘

○3억원 상당의 귀금속이 든 가방을 잃어버린 30대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가방을 되찾아 회제.

○8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서울에서 귀금속상을 운영하는 임모(39)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께 목포시 하당동에서 3억원이 넘는 귀금속이 들어있는 여행을 가방을 택시에 두고 내렸다가 하루 만에 돌려받았다는 것.

○임씨는 이날 거래처에 샘플을 보여주기 위해 출장왔다가 귀금속이 든 가방을 자신이 탔던 택시에 두고 내렸는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임씨가 이용한 택시를 수순하고 기사가 트렁크에서 발견한 가방을 파출소로 가져가 사건이 해결.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역귀성... 자식 만나러 가는 부모

민족 대명절인 추석(12일)을 나흘 앞둔 8일 광주역을 출발, 서울 용산역으로 향하는 KTX에 몸을 실은 노부부가 자식들에게 줄 추석 음식 꾸러미를 짐칸에 올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허영철 전 해남 부군수 항소심 무죄

광주고법 형사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8일 업무에 아파트 분양 대출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허영철 전 해남 부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전 부군수의 아파트 분양 대출금 이자 3000만원을 업자가 대납해 주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

했다. 허 전 부군수는 2009년 3억6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건설업자인 김모씨의 중개로 사면서 대출금(2억2000만원)을 김씨가 대신 갚는다는 내용으로 약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대출금 전액이 아닌 이자 3000만원만 대납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고 해남 지역에서 이뤄지는 공사권의 제공 약속 등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 판단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영유아 보육료 보조금 횡령 공무원 입건

나주 경찰은 8일 보육시설에 지급되는 영·유아 보육료 보조금 등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나주시청 7급 공무원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육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2010년도 보육료 과오지급분 회수과정에서 관내 보육시설로부터 반환받은 영·유아 보육료 보조금 14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지난해 9월 인사이동과 함

께 복직업무를 맡으면서 공무원 보육수당 과오지급분 회수과정에서 공무원 11명으로부터 반환받은 보육수당 315만원과 보육시설 대체지원 보조금 378만원을 시 국고금 계좌가 아닌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빼돌린 혐의다.

전남경찰청은 다른 시·군도 영·유아 보육료 보조금 등 각종 국가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학업 포기 고교생 1276명

광주 최근 3년새... 학교 부적응 해마다 증가

전남은 1503명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광주·전남 고교생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새 3300명의 학생이 부모이혼, 경제난 등으로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파악돼 교육당국의 관심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선진당) 의원이 8일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09년부터 2011년 전국 초·중·고 학업중단 학생 현황'(2009~2011년)에 따르면 광주에서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을 포기한 학생은 1276명에 달했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09년 331명, 2010년 402명, 2011년 543명으로 연평균 100명 가량 증가했다. 전남에서는 지난 2009년 420명에서 2010년 476명으로 늘었으나, 2011년 607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학업 중단 사유별로는 광주는 ▲가사 1548명 ▲부적응 1276명 ▲질병

190명 ▲폭행 91명이었으며, 전남은 ▲가사 1785명 ▲부적응 1503명 ▲질병 218명 ▲폭행 120명이었다.

전체 학업중단 고교생은 광주의 경우 지난 2009년 1370명에서 2010년 1373명, 2011년 1377명이었으며, 전남은 2009년 1580명, 2010년 1490명, 1380명을 유지했다. 광주의 초중고 전체 학업중단 학생은 지난 2009년 2199명, 2010년 2062명, 2011년 2093명이었다. 전남은 2009년 2467명, 2010년 2225명, 2011년 204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학업 중도포기 학생의 증가 요인으로는 최근 부모의 이혼, 경제난 등으로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해 학교에 부적응한데다 학교에서도 마땅한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때문으로 지적된다. 광주시 교육청관계자는 “공부를 계속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대낮 광주 아파트 단지

40대 女 벽돌맞아 위독

8일 오후 3시15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모 아파트 단지에서 김모(여·42)씨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김씨의 옆에서는 피가 물

은 벽돌이 발견됐다.

김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누군가 아파트에서 고의로 던진 벽돌에 김씨가 머리를 맞은 것이 아닌가 보고 폐쇄회로(CC)-TV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Hanbit Gosihakwon (한빛고시학원) featuring a testimonial from a former superior and details about their 9th public service exam preparation course. The ad includes the slogan '선배 합격자가 말한다!' (Former successful candidates say!) and lists various exam preparation services like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법원서기보', etc. Contact information for the Hyeonbuk branch is provided at the bottom.